

사명으로 부르심

찬양·시작기도

마음열기 <바울로부터> 1편을 보신 느낌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을 여세요.

말씀읽기 디모데전서 1:12-16을 함께 읽습니다.

1편 내용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온 후, 가장 존경받던 율법사 가말리엘 밑에서 랍비교육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사도들이 선포하자 많은 백성들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지극했던 사울은 이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확신해 무자비하게 박해를 가했습니다. 처형의 집행관으로 스테반 순교현장을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살기등등해 외국 땅 다메섹으로 가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에게 극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당신의 복음을 전파할 특별한 그릇으로 택해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확인한 사울은 부르심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전도활동을 하기 전 먼저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낸 후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 관찰하기**
1. 사울은 왜 교회를 핍박하게 됐나요? 그의 성장 배경과 신앙 훈련에서 어떤 요소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사명과 확신에 찬 행동을 했나요?(갈 1:13-14)
 2.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묘사하나요?(딤후전 1:13, 15)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했나요?(딤후전 1:14, 16)

- 묵상하기**
1. 예수님은 최악의 핍박자인 사울을 전도자로 불러주셨으며, 과거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예수님을 믿은 후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됐나요? 새로운 차원에서 예수님을 한 번 더 만난다면 어떤 가능성이 펼쳐질까요?
 2. 내가 처한 험하고 외로운 광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견뎌낸다면 오히려 다른 차원의 인생으로 살게 하실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 실천하기**
1.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인내하고 기도하며 소망을 가집시다.
 2. 사울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와 같이 용서를 구하는 용기와 받아 주는 넉넉함을 가집시다.

- 기도하기**
1. 사울같이 저도 용서해 받아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 저의 신앙생활에도 새로운 전기를 허락해 주소서.
 3. 저도 사울같이 “주여,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리이까?”(행 22:10) 여쭙오니 인도해 주옵소서.

*찬양, (헌금, 헌금기도), 주기도문으로 모임을 마칩니다.

추가 참고 자료 다큐 <바울로부터> 심화강의 1: 바울 개관
 다큐 <바울로부터> 심화강의 2: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되기까지
 도서 「바울로부터」 바울 개관, 1-5, 22장

선교의 시작

찬양·시작기도

마음열기 <바울로부터> 2편을 보신 느낌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을 여세요.

말씀읽기 사도행전 13:1-5를 함께 읽습니다.

2편 내용 대도시 수리아 안디옥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지상명령을 직접 받은 사도들조차도 이방선교를 실천하지 못했을 때 박해를 피해 흩어졌던 예루살렘교회의 평신도들이 이방선교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방문한 후 고향 다소에 가서 10여 년 있으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초청을 받아 안디옥에 온 후 성경교사로 섬겼습니다. 교회 대표로 예루살렘교회에 구제헌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복음 전파를 위해 보내라고 말씀하셨고 안디옥교회는 순종했습니다. 안디옥교회를 통해 바울은 새로운 삶과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됐는데, 이는 고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출발한 선교사들은 구브로에서 로마 총독이 회심하는 쾌거를 경험했습니다.

- 관찰하기**
- 어떻게 안디옥에 이방교회가 세워졌나요?(행 11:19-21)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별명을 얻은 이유는 무엇인가요?(행 11:25-26)
 - 안디옥교회 지도부 구성원의 특징은 무엇인가요?(행 13:1) 안디옥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행 11:27-30; 13:2-3)

- 묵상하기**
1.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나는 가끔 금식하며 기도하나요?
안디옥교회는 힘겨운 순종으로 세계선교에 참여하는 첫 교회가 됐는데, 나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2. 사도들보다 평신도들이 먼저 이방선교에 쓰임 받은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행 11:20-21)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주 예수를 전파하면 주의 손이 함께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지 않을까요? 전도가 되지 않는 것보다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 실천하기**
1. 안디옥으로 피난 온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얘기를 했던 것같이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얘기를 해봅시다.
 2. 간절한 기도와 열린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주님의 뜻을 구해 봅시다.
 3. 성령께서 버거운 요청을 하신다 해도 믿음으로 순종해 봅시다.

- 기도하기**
1.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예수님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도와주소서.
 2. 예수님의 특징을 나타내는 ‘예수쟁이’로 살게 도우셔서 ‘예수쟁이’가 좋은 의미로 인식되는 날이 오게 하소서.
 3. 우리 교회도 안디옥교회 같이 나누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삶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 (헌금, 헌금기도), 주기도문으로 모임을 마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찬양·시작기도

마음열기 <바울로부터> 3편을 보신 느낌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을 여세요.

말씀읽기 사도행전 13:46-52을 함께 읽습니다.

3편 내용 구브로를 떠난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앗달리아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곧 마가가 선교팀을 이탈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대도시 버가에서 전도하지 않고 3천5백 미터가 넘는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로마제국은 11킬로미터 밖에서 물을 끌어오면서까지 이곳에 군사적, 행정적, 경제적 전략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바울은 건강이 심하게 악화됐지만 복음 전파에 매진했고, 그 결과 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기와 박해를 받아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로 쫓겨갔지만 복음을 전한 곳마다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도, 구원 역사, 박해, 피신이 반복됐지만 성령께서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하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 관찰하기**
1. 누가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라고 짧게 기록했지만, 다큐 영상을 통해 타우로스 산맥의 높이와 길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믿지 않았고, 약속 밖에 있던 이방인들은 믿었을까요?(행 13:42-48)
 2.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박해한 것과 사울이 회심 전에 교회를 박해했던 이유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행 13:44-45, 49-50; 14:5-6, 19-20)

묵상하기 1. 전도하다 반대에 부딪힐 때 나는 주로 어떻게 대처했나요?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으면서 바울처럼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요?

2. 유대인들은 그들의 사전 지식과 선입견으로 눈이 멀고 귀가 막혀 기다리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도 어떤 전제나 아집에 사로잡혀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실천하기 1. 반대, 박해, 팀원 이탈, 바쁨과 같이 전도를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늘 있지만 이것들을 이겨내 봅시다.

2. 바울이 나중에 마가를 받아준 것과 같이(골 4:10; 딤후 4:11) 나를 아프게 했거나 실망시킨 사람들을 품어 관계를 회복해 봅시다. 복음의 진보를 위해 더욱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기도하기 1. 속해 있는 소그룹에 될 수 있는 대로 함께함으로써 서로에게 격려와 힘이 되게 하소서.

2.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전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대안을 찾으며 더욱 지혜롭게 복음을 말과 삶으로 나타내게 하소서.

3. 산을 넘든, 평지를 걷든, 가까이 가든, 멀리 가든 복음을 들고 가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소서.

*찬양, (헌금, 헌금기도), 주기도문으로 모임을 마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시작기도

마음열기 <바울로부터> 4편을 보신 느낌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을 여세요.

말씀읽기 사도행전 15:6-11을 함께 읽습니다.

4편 내용 더베까지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기로 계획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길을 마다하고 심하게 핍박받았던 지역을 차례로 다시 방문합니다. 그리고 박해받는 성도들을 굳게 하고 교회가 자체적으로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들은 높고 험한 타우로스 산맥을 거꾸로 넘어 앳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 성도도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안디옥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 혼란을 정리한 후 바울은 바나바에게 2차 선교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출발을 앞두고 의견 대립이 생겨 둘은 결국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교회들을 다시 방문한 후 아시아로 가고 싶어 하지만 성령님이 막으시는 것을 느낍니다.

- 관찰하기**
1.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에서 동쪽으로 가서 다소를 거쳐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면 최단거리인데 왜 왔던 길을 길게 되돌아 앳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왔나요?(행 14:21-23)
 2. 거짓 선생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안디옥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내용은 무엇인가요?(행 15:1, 5) 바울과 바나바가 적극 반론을 제기한 근거는 무엇인가요?(행 15:3, 12; 갈 2:3-5)

- 묵상하기**
1. 루스드라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곳이고 이고니온과 비시디아도 심한 박해를 받았던 곳입니다. 그런 곳으로 다시 가는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약속도 없었는데 다시 찾아온 사도들을 보고 새신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2. 1차 선교여행은 심한 핍박의 연속이었지만 바울은 끝까지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썼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실천하기**
1. 전에 복음 접촉을 했던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다시 만남을 주선해 봅시다.
 2. 목회적, 신학적 불협화음이 노출됐을 때 예루살렘 공회와 같이 합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려고 노력해 봅시다.

- 기도하기**
1. 늘 복음 중심, 영혼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소서.
 2. 전에 전도한 사람들의 안위에 관심 갖게 하시고 재회의 기회와 기쁨을 허락해 주소서.
 3. 복음의 진리가 도전받을 때 단호히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용기와 실력과 지혜를 주소서.

*찬양, (헌금, 헌금기도), 주기도문으로 모임을 마칩니다.

이끄시는 대로

찬양·시작기도

마음열기 <바울로부터> 5편을 보신 느낌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을 여세요.

말씀읽기 사도행전 16:6-10을 함께 읽습니다.

5편 내용 갈라디아를 재방문한 후 다음 사역지를 찾던 바울은 성령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따라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유럽 대륙에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루디아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선교팀을 귀찮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다가 주인들의 고소를 받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로 인해 간수와 그의 가족과 죄수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돼 빌립보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후 데살로니가와 베뢰아에도 교회가 세워지며 유럽 복음화가 시작돼 유럽은 지난 2천 년 동안 기독교의 중심이자 선교를 주도하는 대륙이 됐습니다.

- 관찰하기**
1. 바울은 마게도냐 선교를 계획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마게도냐에 가게 됐나요?(행 16:6-10) 전도자들이 사역지로 인도하심을 받는 다양한 길을 알아봅시다(행 11:19-21: 핍박 / 13:2-3: 성령 / 14:21-22; 15:36: 목회적 관심).
 2. 바울이 최우선적으로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나요?(행 17:2-3; 고전 2:2; 15:1-4)

- 묵상하기**
1.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노”(No)는 앞으로 보여주실 더 큰 “예스”(Yes)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성령님은 미래의 “예스”

를 보시면서도, 지금은 “노”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으면 나눠 봅시다.

2. 나는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전한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남에게 이 내용과 믿음을 권면해 주면 좋을까요?(롬 10:9-10)

- 실천하기**
1. 자동문은 닫힌 줄 알면서도 그 닫힌 문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지금 앞에 닫힌 문이 있다면 그 문을 향해 믿음으로 들어가 봅시다.
 2.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을 느끼면서도 계속 열린 문을 찾아 움직였던 바울을 본받아 기도나 전도하다 주춤했던 적이 있다면 다시 시도해 봅시다.

- 기도하기**
1. 매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고 일의 순서가 있으니, 주님의 선하신 뜻과 때를 따라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2. 2천 년 동안 기독교의 중심으로서 선교를 주도했던 유럽교회가 근래에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유럽의 간청을 듣게 하시고 기도와 전도로 유럽을 돕게 하소서.

*찬양, (헌금, 헌금기도), 주기도문으로 모임을 마칩니다.

성과와 실패 사이

찬양·시작기도

마음열기 <바울로부터> 6편을 보신 느낌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을 여세요.

말씀읽기 사도행전 17:22-31을 함께 읽습니다.

6편 내용 홀로 베뢰아를 급히 떠나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수많은 우상과 신전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갖게 됩니다. 주중에는 아고라 시장터에서,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와 부활에 대해 증거하다가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초청을 받아 철학자들과 시민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아덴 사역을 실패한 사역으로 말하지만, 전도에 실패란 없습니다. 아덴에서는 별다른 핍박이 없었지만, 고린도에서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환상 중에 나타나 위로해 주셨습니다. 바울 일행은 큰 힘을 얻고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사역합니다. 여기서 데살로니가전후서를 써 보내며 다른 지역에 개척했던 교회들을 돌보는 사역도 시작합니다. 고린도 사역을 끝으로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고 수리아 안디옥교회로 돌아옵니다.

- 관찰하기**
1. 바울은 관찰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아덴에 가득한 우상과 신전을 관찰한 것을 어떻게 전도에 활용했나요?(행 17:23) “시작이 반이다”는 속담처럼 전도할 때도 일단 입을 열면 수월해집니다. 바울은 전도할 때 어떻게 말 문을 열었나요?(행 17:22)
 2. 고린도에서 갈리오 총독이 재판을 열지 않은 것이 어떤 면에서 바울에게 유리하게 받아들여졌나요? 유대인들은 왜 격분해 폭력을 휘둘렀을까요?(행 18:12-17)

- 묵상하기**
1. 우상과 학문과 철학의 도시였던 아텐에서 아크로폴리스를 가리키며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선포했던 바울의 당당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행 17:24)
 2. 바울은 복음의 씨를 뿌리고 결과는 주님께 맡겼습니다(고전 3:6-7). 씨를 뿌리다 보면 돌밭과 가시밭에 떨어지는 씨도 있지만 옥토에 떨어지는 씨도 있습니다. “내게서 나간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셨으니(사 55:11), 전도에 실패가 있을까요? 나의 작은 노력도 다 쓰임을 받지 않을까요?

- 실천하기**
1. 복음을 나누려는 의도를 갖고 주변 상황과 사람들을 관찰하며, 관찰한 상황을 바탕으로 부탁(예수님: 요 4:7), 질문(빌립: 행 8:30), 칭찬(바울: 행 17:22)과 같은 긍정적 방법으로 접근해 봅시다.
 2. 조롱받아도, 박해받아도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았던 바울처럼 결과는 성령께 맡기고 겸손한 말과 모본되는 삶으로 복음의 씨를 뿌려봅시다.

- 기도하기**
1. 바울을 본받아 전도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주변을 살피게 하시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입을 열 때 성령으로 도와주소서.
 2. 바울 같은 담대함, 순발력을 주시되 무엇보다 예수님을 전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3.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포함해 많은 신실한 동역자들을 주신 것같이 제게도 동역자들을 주시고 저도 남에게 힘이 되는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찬양, (헌금, 헌금기도), 주기도문으로 모임을 마칩니다.

전쟁의 서막

찬양·시작기도

마음열기 <바울로부터> 7편을 보신 느낌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을 여세요.

말씀읽기 갈라디아서 2:11-14를 함께 읽습니다.

7편 내용 고린도를 떠난 바울은 브리스갈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에베소를 맡기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서원을 마무리하고 선교보고를 했습니다. 안디옥의 파송교회에서도 마게도냐까지 교회가 개척된 사역보고를 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머무는 동안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심히 책망하는 안디옥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방 성도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지키게 하려는 일부 유대 성도들의 집착은 끈질겼고 그들을 두려워하는 베드로를 바울은 절대 지나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신학적으로 지키려는 바울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 후 바울은 에베소로 3차 선교를 떠납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3년 동안 고린도를 향한 바울의 목회적 노력도 계속됩니다.

- 관찰하기**
1. 베드로는 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형제들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갈 2:12-13)
 2.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3년 동안 바울은 에게해 건너편의 고린도 교회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고린도에는 네 번이나 편지를 보냈고 세 번 방문했습니다. 왜 그런 정성을 쏟았을까요?

- 묵상하기**
1. 교회를 꺾어버렸던 바울이 아무리 사도가 됐다 해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꾸짖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사탄의 파악과 용기란 언제 필요한 것일까요?
 2.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베푸셨던 예수님을 닮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하나에 깊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은 폭넓고 다양한 사역을 하면서도 필요하다 싶으면 과도하리만치 한 영혼에 정성을 쏟습니다.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요?

- 실천하기**
1. 진리나 예수님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을 보면 무례하지 않게, 그러나 단호하게 바로잡으려고 노력해 봅시다.
 2. 군대 귀신 들린 한 영혼을 찾아가 고쳐주신 예수님과 어려움에 처한 고린도의 한 교회를 목회적으로 보살핀 바울을 본받아 우리도 남의 필요를 살피고 채워주는 작은 목자가 됩시다.

- 기도하기**
1. 복음의 진리가 타협되는 것을 볼 때 지적할 수 있는 판단력과 순발력, 지혜와 겸손을 주옵소서.
 2. 두란노서원에서의 훈련사역을 통해 아시아 전역이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같이 이 시대에도 복음전도와 교회개척을 위해 요긴하게 쓰임 받을 사역이 세워지게 하소서.

*찬양, (헌금, 헌금기도), 주기도문으로 모임을 마칩니다.

추가 참고 자료 다규 <바울로부터> 심화강의 3: 초대교회의 이방 선교 시작과 율법관의 변화 도서 「바울로부터」 15-16, 23장

아버지의 마음으로

찬양·시작기도

마음열기 <바울로부터> 8편을 보신 느낌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을 여세요.

말씀읽기 갈라디아서 2:16-21을 함께 읽습니다.

8편 내용 꿈에도 그리던 에베소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한 바울은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만큼 대대적인 선교사역을 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마술의 도시에서 마술사들이 개종해 공개적으로 마술책을 불사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의 성공적인 사역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우상 제작과 판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들의 공격을 받은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와 마게도냐를 거쳐 일루리곤까지 선교합니다. 그 후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교회들을 찾아다니며 할례와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곧바로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갑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바울은 결연한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써 보냅니다.

- 관찰하기**
1.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행 19:20; 고전 16:8-9)로 종합된 배경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에베소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고 했던 상황과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고후 1:8-9)
 2. 우상 제작과 판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을 선동해 불행집회를 모았나요?(행 19:23-27) 바울 일행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신 방법은 무엇이었나요?(행 19:35-41)

- 묵상하기**
1. 대연극장에서 두 시간 동안 목청을 높이며 자신들을 규탄하는 소리를 듣고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분노한 그 데모대를 마주해 당당했던 바울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2. 성공적으로 사역했고 세 번이나 재방문을 했던 갈라디아교회가 거짓 선생들의 꾀임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고 간절했을까요? 그들을 복음으로 바로잡으려는 애타는 노력으로 쓴 갈라디아서를 통해 후대에도 복음의 진수를 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가요!

- 실천하기**
1. 에베소 서기장은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다른 종교를 비난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원리를 실천합시다.
 2.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하지만 믿은 후에는 거룩한 삶, 사랑과 연합의 삶, 선행의 삶을 삽시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바울의 권면을 실천합시다(엡 2:8-10; 5:8; 빌 1:27; 딤후 2:14).

- 기도하기**
1. 거의 아시아 전체가 복음을 듣게 했던 그런 열심과 전략을 가진 복음의 일꾼들과 사역을 이 시대에도 세워주옵소서.
 2. 복음의 진리를 바로 분변함으로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로 들어올 때 대적해 진리를 수호하게 도와주소서.

*찬양, (헌금, 헌금기도), 주기도문으로 모임을 마칩니다.

추가 참고 자료 다큐 <바울로부터> 심화강의 4: 초대교회 주요 사건과 연대기 재구성 도서 「바울로부터」 16-17, 24장

진리를 향한 담대함

찬양·시작기도

마음열기 <바울로부터> 9편을 보신 느낌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을 여세요.

말씀읽기 사도행전 20:22-30을 함께 읽습니다.

9편 내용 갈라디아서를 써 보내고 바울은 약속했던 대로 고린도로 향합니다. 이미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교회와 갈라디아교회들은 물론 다른 교회들도 공격을 받을까 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로 갈 여건이 이제 마련됐지만 바울은 예루살렘부터 가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예루살렘교회 지도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성령의 음성과 선지자들의 경고를 받았지만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이방교회들을 복음의 진리로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대면해 가르치려던 내용을 편지로 써서 로마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모은 이방교회들의 지역대표들을 대동하고 복음과 진리를 사수하려는 결연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 관찰하기**
1. 로마로 갈 수 있게 됐는데 예루살렘부터 가는 배경은 무엇인가요?(롬 15:22-25) 전에는 믿을 만한 형제들이 헌금을 전달해도 충분하다 했는데(고전 16:1-4), 이제는 직접 갖고 갑니다. 헌금 전달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2. 바울의 두 가지 기도제목에서 무엇을 감지할 수 있나요?(롬 15:30-31) 왜 바울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꼭 헌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 묵상하기**
1. 거짓 선생들은 잘못된 신학과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바울을 바로잡겠다는 일념으로 대대적 공세를 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신다고 생각했을까요?(갈 2:5; 고후 11:12-15)
 2. 로마서에 복음의 진수를 담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짓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은 진리를 밝히 숙지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 실천하기**
1. 스페인 개척선교, 로마교회 방문까지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을 보며 우리의 삶이나 신앙생활에서도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할 것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2.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확신에서 최선을 다해 전했습니다(롬 10:13-15). 이런 바울의 모습을 내 삶 속에서도 실천해 봅시다.
- 기도하기**
1. 아무리 좋은 제품도 만들어 놓고 알리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알지 못해 유익을 얻지 못하듯,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신 '가장 위대한 사랑의 스토리'도 알리지 않으면 죄인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믿고 경험한 우리가 바울과 같은 확신과 소명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2.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헤어질 때(행 20:36-38) 그들은 진정으로 아쉬워했으나 감사하고 축복하며 헤어졌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이임이나 은퇴 때 이러한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하옵소서.

*찬양, (헌금, 헌금기도), 주기도문으로 모임을 마칩니다.

추가 참고 자료 다큐 <바울로부터> 심화강의 5: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도서 「바울로부터」 17-18, 25장

끝나지 않는 선교

찬양·시작기도

마음열기 <바울로부터> 10편을 보신 느낌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을 여세요.

말씀읽기 디모데후서 4:1-8을 함께 읽습니다.

10편 내용 바울은 고난의 예언을 듣고 눈물로 만류하는 형제들을 뿌리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이방교회를 위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예루살렘교회 지도자들은 이방교회들이 모은 연보를 잘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오해가 예루살렘에 퍼져 있음을 들은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대로 행해 오해를 해소했습니다. 하지만 불신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큰 소동이 일어났고 결국 로마군에게 체포돼 2년 동안 가이사라에 수감됩니다. 이 기간에 바울은 빌립보, 골로새,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이길 수 있는 진리와 삶에 대해 편지를 보냅니다. “황제에게 증언하라”는 환상대로 로마로 이송돼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풀려난 후 4차 전도여행을 했지만 다시 체포돼 순교하고 맙니다. 바울의 파란만장한 삶은 그때 끝났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됩니다.

- 관찰하기**
1. 바울은 자신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율법을 따라 정결의식을 행했습니다(행 21:20-24). 이것은 율법을 반대하던 모습과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라면 바울은 누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반대한 것인가요?(고전 9:19-23)
 2. 죽음을 예견하고 죽음 앞에 담담했던 바울이(딤후 4:6-8) 후계자 디모데에게 전해 준 가장 준엄한 유언은 무엇인가요?(딤후 4:1-2, 5)

- 묵상하기**
1. 하나님은 위대한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2년, 로마에서 2년이나 감옥에 있게 하셨습니다. 몸으로 끊임없이 달리는 것만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급히 달리게도, 때로는 쉬게도 하십니다. 바울은 이 육신적 쉼의 기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2. 예수님을 만난 후 오직 “예수 사랑, 복음 전파, 진리 수호”라는 한 길만 달려온 바울, 그는 죽음을 앞두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삶을 마감할 때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내 삶을 돌아볼까요?

- 실천하기**
1.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나의 소명을 묵상해 봅시다.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내게 주신 재능으로 주님을 섬길 작은 소원과 소명을 적어봅시다.
 2.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전 11:1). 바울을 본받을 영역은 많이 있는데, 특히 내가 본받아야 할 바울의 모습과 원리를 적고 조금씩, 그러나 지속적으로 실천해 봅시다.

- 기도하기**
1. 바울 같은 위대한 종을 세워 사용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의 예수 사랑 정신과 복음화 전략이라는 횃불이 이 시대의 작은 바울들을 통해 재점화되게 하소서.
 2.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을 분변해 감당할 힘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소서.
 3. 다큐 <바울로부터>가 좋은 자료의 차원을 넘어 한국과 세계에 바울 정신을 실천하는 운동을 일으키는 불쏘시개로 쓰임 받게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소서.

*찬양, (헌금, 헌금기도), 주기도문으로 모임을 마칩니다.

추가 참고 자료 다큐 <바울로부터> 심화강의 6: 옥중서신은 어디서 썼을까?
 도서 「바울로부터」 19-21, 26장